

## 경제적 곤란과 문화적 도전이 다문화부부의 가족과정에 미치는 효과: 경제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형의 응용\*

현 경 자<sup>†</sup>

성공회대학교

이 연구는 다문화부부들 사이에서 경제적 곤란과 문화적 도전이 각기 그리고 통합적으로 우울과 같은 정서적 고통과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을 통해 결혼의 질과 안정을 침해하는 가족과정을 검토하고 이 두 스트레스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문화도전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과정이 경제곤란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 부부표본 415쌍(n=830)의 자료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각 스트레스 요인이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추가된 대안모형의 적합도가 좀 더 양호하였다. 예측대로 경제곤란이나 문화도전은 각각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민자 부인의 우울과 정적으로 연관되었고 그런 우울은 부부의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에 기여했다. 또 각 스트레스 요인은 그런 갈등반응과 정적으로 연관되었고,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은 이어서 부부 각자의 결혼만족을 낮추는 간접경로와 직접경로로 결혼의 안정을 감축했다. 하지만 문화도전 및 통합 스트레스 모형에서 예측과 달리 남편의 결혼만족은 결혼의 안정과 무관했다. 스트레스 통합모형 분석에서 경제곤란과 연관된 남편의 우울은 미미해진 반면에 문화도전과 연관된 남편의 우울수준은 오히려 더 높아졌는데, 이 두 유형의 스트레스는 모두 부인의 우울에 기여했다. 또 경제곤란이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사라졌고, 문화도전의 그런 효과는 오히려 더 커졌다. 끝으로 다집단분석 결과, 경제곤란 인식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문화도전에 따른 스트레스와 남편의 우울로 부부가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을 현저히 더 보였고 그런 갈등행동이 결혼의 안정을 감축할 가능성도 현저하게 높았다. 이 결과들은 문화차로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서로에게 공격적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결혼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다문화부부의 경제력 강화가 절실함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부부, 경제곤란, 문화도전, 우울, 부부갈등, 다집단분석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8358). 이 연구는 중앙공동모금회가 지원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중간평가와 지원방안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일부를 이용하였다. 이 사업을 지원한 공동모금회와 자료수집에 참여한 36개 수행기관들과 실무자들 그리고 조사에 응해준 다문화부부들께 감사한다.

† 교신저자: 현경자,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320, E-mail: swwhyun22@hanmail.net

저소득층 한국남성과 아시아계 여성 간의 국제결혼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문화적 장벽과 경제곤란의 이중고가 잠재되어 당사자들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꾸려가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 이 부류의 국제결혼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동안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한편에서 결혼이민여성 부부들의 이혼이 빠르게 증가한 것도<sup>1)</sup> 그러한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결혼해체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인 남편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생활양식의 차이, 즉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이혼을 고려하게 된 경우가 많고, 반면에 결혼이민자 부인들은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와 경제문제를 이혼사유로 제시한 경우가 많다(김이선, 마경희, 선보영, 최호림, 이소영, 2010 참조). 또 언어와 문화차로 표상되는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이 다문화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친 효과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으로 조사했을 때 한국인 남편은 문화적 도전으로 그리고 결혼이민자 부인은 경제적 곤란으로 어려움이 클수록 자신과 배우자 모두의 이혼의사가 강하게 나타났다(현경자, 김정화, 2015). 이 연구들은 다문화부부의 결혼생활에 잠재된 이중고, 즉 경제적 곤란과 문화적 도전이 결혼의 안정성을 감축하는 실질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임을 시사하는데<sup>2)</sup> 그런 결과로 이어

지는 가족과정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드물어 다문화가족의 해체방지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결혼이민여성 부부들이 겪는 결혼생활에서의 어려움은 문화적 요인과 경제적 이슈가 어우러져 심화되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당사자들의 안녕과 가족과정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아 이 두 유형의 스트레스가 각기 그리고 통합적으로 다문화부부의 결혼생활과 그 성과(marital outcome)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경제곤란과 문화도전의 상호작용으로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문제가 부부와 가족과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주목하여 Conger와 그 동료들이 발전시킨 가족스트레스 모형을 보면(Conger & Conger, 2002; Conger et al., 1990; Conger, Ge, & Lorenz, 1994; Conger, Rueter, & Elder, 1999; Conger, Wallace, Sun, Simons, McLoyd, & Brody, 2002)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각 배우자가 느끼는 정서적 고통에 의해 중재되고, 그런 심리적 고통은 부부 간에 역기능적 갈등반응행동을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결혼의 안정성을 침해한다. 이 가족스트레스 모형은 미국의 중산층 및 농촌지역 백인과 흑인가족, 도시 근로가족, 유럽인 가족, 우리나라의 중산층 및 저소득층 부부 등에 응용되어(예: 권희경, 2009; 현경자, 2008; Conger & Conger, 2002; Conger et al., 2002; Kinnunen & Feldt, 2004; Kwon, Rueter, Lee, Koh, & Ok, 2003; Sallinen & Kinnunen, 2001; Vinokur, Price, & Caplan, 1996) 경제압박으로 인한 가족스트레스 과정이 사회계층이나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유사하게 전개됨을 보여준 바 있다(현경자, 박성연, 2012).<sup>3)</sup> 다문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대체로 낮게 보고되고 있다(권규영, 박근우, 2007; 박서영, 하수정, 송지영, 안현선, 조희원, 박성연, 2009).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도 경제적 곤란과 문화적 도전이 다문화가정에 잠재된 이중고로서 결혼생활에 위협이 됨을 유추할 수 있다.

1) 외국여성과의 국제결혼이 한국인의 총 결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 2.2%, 정점을 이룬 2005년에 9.8%(30,719건)로 급증하였고 2015년 말 현재 약 5%(14,700건)에 달하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는 귀화자를 포함하여 총 253,791명으로 국내 거주 외국계 배우자의 약 83%를 차지한다. 한편 2004년에 1,567건이던 이들의 이혼은 2008년에 약 5배가 되는 7,901건으로 늘어났고 2014년 현재도 7,000건으로 한국인의 전체 이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에 이른다(통계청, 2015).

2) 대다수의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결혼생활에서 언어문제, 경제적 어려움, 한국문화 이해 등의 순으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정기선 외, 2007), 언어와 문화차로 인한 어려움과 동시에 한국인 시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문제

화부부가 문화차로 겪는 갈등도 당사자에게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고(김이선, 2008) 부부 갈등의 주요인이 되므로(김오남, 2006) 경제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과정과 유사한 경로로 결혼의 질과 안정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가족스트레스 모형이 다문화부부의 경제곤란 뿐 아니라 문화도전과 같은 스트레스에 적용될 수 있는지,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이 두 스트레스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가족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커 보인다.

그 동안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다문화부부의 가족과정이나 결혼만족, 결혼안정 등의 결혼성과를 부부 중 한 쪽, 특히 이주여성의 입장에서 주로 조사하여(예: 서해정, 김형모, 2009; 현경자, 2012) 부부의 상호의존성과 양쪽의 입장을 반영하는 부부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또 국제결혼 부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편이나 부인의 문화적응스트레스나 문화적응태도, 문화차로 인한 부부갈등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예: 권복순, 2009; 김오남, 2006; 김현숙, 2010; 이무영, 2010; 정선아, 2009)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에 비해 경제적 곤란에 주목한 연구는 소수이고, 경제상황은 문화적 이슈를 다루는 연구들에서 통제변인의 하나로 소득수준의 효과를 살펴보는 데 그친 경우가 많다(현경자, 김정화, 2015). 게다가 양적 연구들의 경우, 상관관계의 탐색을 통해 특정문제, 예를 들어, 부부갈등이나 이혼의사의 예측요인들을 밝히거나 아내문화수용, 문화적응스트레스 등 특정변인의 효과를 알아보는데 주력하여

(예: 권복순, 2009; 김오남, 2006; 김정순, 2012; 박재규, 2007, 2011; 박진옥, 이광동, 2014; 장운정, 박정운, 2009) 특정변인이 어떻게, 즉 어떤 변인들과 과정을 통해 결혼생활을 돕거나 침해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중심의 부부연구에 소홀했던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편향은 문화적 도전 못지않게 다문화부부의 결혼생활에 위협이 되는 경제적 곤란의 영향력 뿐 아니라 문화도전과 경제곤란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계와 우리사회의 이해를 제한하여 다문화부부의 성공적인 결혼생활과 가족해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서비스 개발을 지체시켰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적 곤란과 문화적 도전으로 침해될 수 있는 다문화부부들의 가족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Conger 등(1999)이 발전시킨 가족스트레스 모형을 응용하여 기존의 연구들과 두 가지 측면에서 구별되는 연구질문들을 검토하였다. 첫째, 경제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형이 다문화부부들이 경험하는 경제곤란 뿐 아니라 문화도전과 같은 스트레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둘째, 문화도전과 경제곤란이 통합적으로 결혼의 질과 안정을 침해하는 과정을 가족스트레스 모형에 입각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스트레스 변인들의 통합적인 영향력은 경제곤란과 문화도전을 분석에 함께 고려하는 방식 뿐 아니라 문화적 갈등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과정이 부부가 경험해 온 경제곤란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규명하는 방식으로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가족스트레스 모형연구의 영역과 대상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문화도전과 경제곤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

3)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용어들, 즉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적 문제, 경제압박, 경제곤란, 경제적 긴장 등은 가족의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여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와 재정적 의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Conger 등(1999)의 연구에서와 같이 내내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 용어들에 대한 개념화와 측정은 연구자들마다 다소 차이를 보여 원 논문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경제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형: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가족과정<sup>4)</sup>

결혼생활에서 부부가 느끼는 경제적 압박(economic pressure)은 실업, 고용불안정, 파산 등으로 생계와 교육비 긴축이 불가피하고 자산 감소와 채무 증가 등에 의해 기본적 욕구와 재정 의무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때 경험된다(Conger et al., 1999). 이런 상황의 지속은 기혼자 개인이나 부부에게 고통스럽고 따라서 부부 간에 긍정적 행동의 감소와 부정적 행동의 증가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결혼의 질과 안정을 침해한다(Conger et al., 1990, 1994). 이 가족과정을 이론화한 가족스트레스 모형(Conger et al., 1999)은 부부의 격화된 감정과 행동 맥락을 Berkowitz(1989)가 재구성한 좌절-공격이론으로 개념화하고(현경자, 박선영, 2012), Gottman(1993)의 결혼붕괴(marital dissolution) 이론에 근거하여 부부간의 공격적인 갈등반응행동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강화하여 결혼만족도의 저하와 결혼해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경제압박이 장기화되면 당사자에게 좌절감이 축적되어 우울, 불안, 적대감 등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부부간에 비난, 공격, 분노철회(angry withdrawal)와 같은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을 촉진하여 결혼생활의 고통(marital distress)으로 이어진다. 경제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형은 간명성을 추구하여 부부갈등이 결혼만족을 저해하는 경로를 생략하고 경제적 압박 → 정서적 고통 → 부정적 갈등반응행동 → 고통스런 결혼생활, 즉 결혼의 안정성이 약화되는 상태로 이

4) 경제적 어려움이 개인이나 결혼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해 꾸준히 밝혀져 왔으나(Voydanoff, 1990; White & Rogers, 2000 참조), 대부분이 그런 스트레스 요인과 개인의 안녕감, 관계만족 또는 결혼안정성 간의 부적 연관성을 보여주는데 그쳐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가족과정을 다룬 연구는 Conger와 그 동료들(1990, 1999, 2002)이 발전시킨 가족스트레스 모형과 그것을 응용한 연구들이 거의 유일해 보인다(현경자, 2008).

어지는 경로들을 구조화한 것으로 이를 응용하거나 보완한 가족스트레스 모형연구들은 앞서 언급되었듯이 여러 문화권과 사회계층에서 대체로 원모형을 지지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의 경우, 경제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형을 응용한 연구는 소수로 나타난다(예: 권희경, 2009; 현경자, 2008; 현경자, 박선영, 2012; Kwon et al., 2003). 그 중 경제위기 상황이 중산층 부부들에게 미친 영향을 조사한 Kwon 등의 연구(2003)에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부인들에게서만 정서적 고통에 의해 매개되었고<sup>5)</sup> 또 부부갈등으로 이어지는 직접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경제압박이 부부관계를 침해하여 결혼의 성과를 저해하는 큰 흐름은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다. 또 대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부부들을 조사한 연구(현경자, 2008)에서는 Conger 등(1999)의 가족스트레스 모형과 측정방식에서 일관성을 높이고 결혼만족의 저하를 통해 결혼의 안정성이 약화되는 경로를 포함시켜 남편의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이 자신과 부인의 결혼만족을 감소시켜 결혼의 불안정이 강화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결혼만족에 의한 매개경로의 추가가 모형의 간명성을 손상하지만 부부간의 차이를 밝히는데 중요함을 시사하여 주목된다. 그 외에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스트레스가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삶의 질 등에 부적으로 기여함을 보여주는 국내연구들도 가족스트레스 모형과 대체로 일관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예: 박인숙, 송효숙, 김경애, 1999; 안병철, 1998; 이미숙, 고선주, 권희경, 2000; 조혜자, 방희정, 1998).

경제적 곤란은 다문화가정의 부부들이 결혼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가 크고 가족의 경제자원이 현재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재정적인 의무들을 수행하는데 충분하

5) 이 연구는 정서적 고통의 측정에 스트레스 지각 척도를 이용한 반면 가족스트레스 모형을 발전시킨 Conger 등(1999)은 우울과 불안 및 적대감 척도를 이용하여 연구결과의 차이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 못하여 경제적 압박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태를 포함한다.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다문화부부들의 가족과정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이지만 가구소득 등으로 측정된 다문화부부의 경제상황은 이혼의사나 이혼가능성과 대부분 유의하게 연관되어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설동훈과 이계승(2011)의 부부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한국인 남편의 이혼의사가 낮아졌는데 결혼이민자 부인의 이혼의사는 가구소득과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결혼이민여성들만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이혼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홍성효, 하현주, 김종수, 2012) 경제수준을 이주여성이 높게 평가할수록 이혼의사의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박재규, 2007). 또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부부표본에 적용했을 때, 앞서 언급되었듯이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곤란에 대한 높은 인식은 부부 모두의 이혼의사와 정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었지만 남편의 그런 인식은 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했다(현경자, 김정화, 2015). 이 부부연구의 부인들이 포함된 결혼이민여성 연구에서 결혼의 질과 안정의 관련요인으로 고려된 두 가지 경제변인들의 효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지출에 필요한 돈의 충분 정도는 결혼만족과만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고 반면에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정도는 결혼만족 뿐 아니라 결혼안정과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여 장기화된 경제적 곤란의 경험이 결혼이민여성들 사이에서도 결혼의 안정성을 침해함을 유추할 수 있다(현경자, 2012).

게다가 이상의 방식으로 측정된 경제변인이나 낮은 월소득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족 및 주요타자의 사회적 지지 효과를 통제하고도 결혼이민여성들 사이에서 우울, 불안, 신체화증상 등과 같은 정서적 고통과 연관되고(임혁, 2010; 현경자, 김연수, 2012), 이 여성들의 정신건강 수준은 결혼생활이 안정적일수록 높게 나타난다(이성희 외, 2012). 또 다른 연구에서 낮은 소득과 높은 스트레스는 한국인 남편들의 무력감을

키워 우울과의 연관성이 시사되었고(김계하, 선정주, 오숙희, 2013), 경제수준 및 경제문제는 일본, 중국, 필리핀 등에서 성장한 이주여성들의 다문화가정들에서 부부갈등의 주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강유진, 1999; 윤형숙, 2004; 이규삼, 1999).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다문화가정의 경제상태가 외생변인으로서 부부의 정신건강과 부부갈등뿐 아니라 결혼의 질과 안정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스트레스원이 됨을 시사하여 경제압박으로 인한 가족스트레스 모형을 다문화부부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 또 소수의 부부연구들에서 남편과 부인이 보고한 가구소득, 경제적 곤란 등이 각자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부부가 공통으로 인식하는 경제상황의 영향력은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형과 일관되게 다문화부부 모두가 경제적 곤란을 높게 느끼는 스트레스 상황이 이들의 결혼생활 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부부가 인식하는 경제적 곤란의 정도가 클수록 부부 각자가 우울과 같은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는 정도가 크고 그러한 정서적 고통은 이어서 부부의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 부부의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은 각자의 결혼만족을 저해하는 간접경로와 직접경로로 부부의 결혼안정성을 감축하고 각자의 결혼만족은 결혼의 안정에 기여하는 연구모형이 검토되었다. 본 연구는 가족스트레스 모형을 토대로 하되 국내연구에서 남편의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이 자신과 부인의 결혼만족을 감축하는 간접경로로 결혼의 불안정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현경자, 2008) 부부의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이 부부 각자의 결혼만족을 통해 결혼의 안정성에 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이 포함된 연구모형을 채택하였다(그림 1에서 외생변인으로서 경제적 곤란 만 포함시킨 모형).

### 가족스트레스 모형으로 본 문화적 도전과 다문화부부의 가족과정

문화적 도전은 여성결혼이민자와 같은 이주민이 정착국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선주민들과 또는 한국인 남편과 같은 문화적 다수자가 소수자인 이주외국인과 “교류하거나 동거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직면하게 되는 제반 어려움을 뜻하며 이해당사자들 간에 문화적인 조율과 타협이 필요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현경자, 김정화, 2015, p. 207). 예를 들어,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익숙한 한국인 남편과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 내 권위가 상대적으로 존중되는 양변친족 문화에 익숙한 결혼이민여성은 의사결정, 역할분담, 생활수행 방식, 가치관 등에서 의견차로 충돌할 수 있는데(김이선, 2008) 이는 부부간의 문화적인 조율과 타협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문화적 도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 남편들보다 성평등적인 태도를 보이고(박진옥, 이광동, 2014)<sup>6)</sup> 다문화부부들 사이에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제한된 지식과 경험은 의사소통 곤란, 생활양식과 문화수행방식의 차이로 인한 심리적 긴장, 자녀양육방식의 충돌, 부부관계에서의 갈등 및 폭력상황 등과 연관된다(김오남, 2006; 김이선, 2008; 최지영, 2013). 문

6) 현경자 등(2015)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차이는 성평등을 지향하는 현대의 한국여성들과 보다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려는 한국남성들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현대 산업사회의 친족관계도 부계중심에서 양변친족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김민정, 2008) 다문화부부 사이의 의사결정이나 역할기대에서의 차이가 실제로 문화차를 반영하는 문화도전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한국남성들이 저소득층에 보다 집중해있고 전통적 가치를 더 고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대 한국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성평등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런 차이는 여성이 가족 내에서 경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거나 권위를 인정받는 동남아시아 문화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화적 도전의 내용이 질적으로 다른 문화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개인의 사고방식, 가치관, 가사분담,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등은 경제적 문제와 함께 다문화부부들이 갈등을 높게 느끼는 영역들에 포함되고(최지영, 2013) 문화적 요인은 부부갈등의 핵심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김오남, 2006). 한·미 국제결혼부부를 조사한 박종삼(1983)은 부부가 서로의 문화적 맥락을 알지 못하면 가치관의 차이로 소외감을 경험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다.

문화적응 과정에서 다른 문화와 접촉할 때 개인과 집단이 경험하는 고통과 역기능으로 우울, 분노, 소외감, 주변화된 느낌이나 정체성 혼란 등이 보고되고, 이주민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도 해소할 기회를 갖기 어려워 그러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권구영, 박근우, 2007).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 배우자보다 우울증후군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정기선 & 한지은, 2009), 결혼이민자 부인과 한국인 가족들 사이에서 이들의 관계와 소통을 증대해야 하는 한국인 남편들도 언어장벽과 문화차로 스트레스가 축적되면 우울과 같은 정서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문화적 도전의 효과를 직접 다룬 연구는 드물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그런 스트레스는 결혼이민 여성의 우울에 기여할 뿐 아니라 부부간의 적응, 결혼만족, 안정적인 결혼생활 등을 저해하고(고은주, 2009; 권구영, 박근우, 2007; 양옥경, 송민경, 임세화, 2009; 임수진, 오수성, 한규석, 2009) 문화적 차이로 불안한 부부관계나 스트레스는 위기상황을 초래하여 가족붕괴의 위험과도 연관된다(김석란, 2008). 한국인 남편들이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문화관련 경험이나 태도도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과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남편들의 문화적응 태도가 좋을수록 부부갈등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정선아, 2009)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다문화수용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다(이무영, 2010).

문화적 도전에 따른 스트레스로 긴장이 축적

되어 좌절감이 커지면 정서적 고통도 클 수 있고 그 여파가 경제적 스트레스의 여파와 유사한 경로로 결혼생활에 위협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형을 응용하여 문화적 도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문화부부의 정신건강과 결혼생활 과정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곤란 모형의 가설과 일관되게 다문화부부가 인식하는 문화적 도전의 정도가 클수록 부부 각자가 우울과 같은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는 정도가 크고 그러한 정서적 고통은 이어서 부부의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 부부의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은 이 연구에서 각자의 결혼만족을 저해하는 간접경로와 직접경로로 부부의 결혼안정성을 감축하고 각자의 결혼만족은 결혼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그림 1에서 문화적 도전만 외생변수로 포함시킨 연구모형이 검토되었다.

아울러 이상의 개별 스트레스 연구모형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대안모형들과의 비교·검토가 이루어졌다. 경제곤란이나 문화도전 같은 스트레스는 결혼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결정이나 가정운영방식에 대해 부부가 함께 생각하

고 소통할 기회를 촉구하므로 그 과정에서 부부간의 견해나 목표의 차이로 갈등이 심화된다면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이 교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스트레스가 높은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배우자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고 상대 배우자의 부정적인 행동들을 의도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높아(Bradbury, Beach, Fincham, & Nelson, 1996) 상호작용 중에 보다 공격적일 수 있을 것 같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한·일 국제결혼부부의 갈등양상에 공격행동이 빈번함을 보여준 한주연(2002)의 연구와 필리핀 여성과 호주 남성 부부들 간에 재정요인이 지속적인 긴장의 원천이 됨을 보고한 Ang(1995)의 연구 그리고 국내의 다문화가정들에서 문화적 요인이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및 폭력상황에 유의하게 기여함을 보여준 김오남(2006)의 연구 등도 그와 유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곤란이나 문화도전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부부의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 즉 그림 1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경로가 추가된 개별 스트레스 대안모형들을 연구모형들과 함께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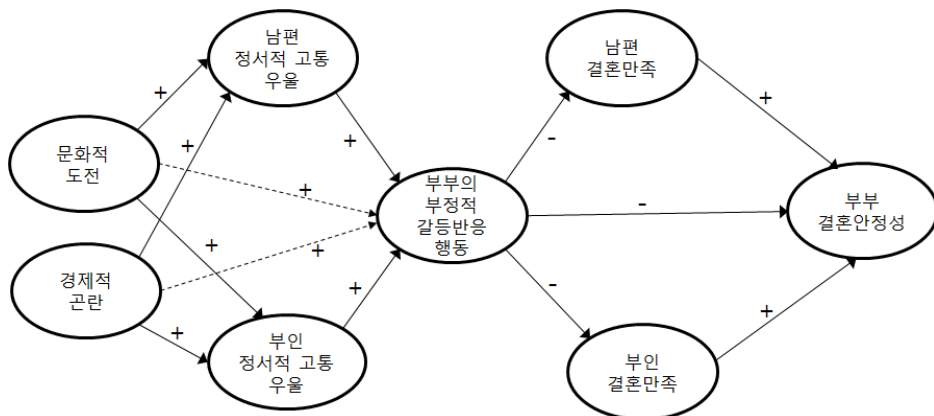


그림 1. 경제적 곤란과 문화적 도전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 부정적 갈등반응행동, 결혼만족 및 결혼안정성 간의 관계구조를 보여주는 연구모형 (+ 정적관계; - 부적관계; 점선은 대안모형에 추가된 경로들임)

### 경제적 곤란과 문화적 도전이 통합적으로 다문화부부의 가족과정에 미치는 효과

열악한 경제적 조건이 개인의 통제권 밖에서 지속적으로 가정생활을 압박하는 상황은 저소득층 부부들 사이에서 무력감과 희망 부재의 원인이 된다(Walsh, 1998), 그런 가운데 저소득층 다문화부부들은 문화적 차이로 스트레스를 겪기 쉬워 경제곤란과 문화도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그와 같은 이중고를 시사하는 선에서 그친 것들이 많다. 일례로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 의사소통 문제, 권위적인 한국문화의 압력으로 스트레스가 높고, 의사결정권과 가계비 관리권이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는 점과 한국인 남편의 가부장적 사고방식, 폭력, 술, 도박 등으로 부부갈등이 심각하다(양순미, 2006; 윤형숙, 2004). 한국인 남편들도 경제문제와 외국인 부인의 친정지원 이슈로 스트레스를 받고 배우자와 문화 및 생활방식의 차이로 어려움이 크다(김이선 외, 2010; 손은록, 2004; 최지영, 2009). 경제적 곤란과 문화적 갈등이 각각 다문화부부 개인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문화적 도전이 결혼생활을 침해하는 힘은 경제적 곤란으로 부부의 스트레스가 높을 때 배가될 가능성이 높다. 즉 문화적 도전의 부정적 영향력은 경제적 곤란을 다문화부부가 어느 정도 느끼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필리핀 여성과 호주 남성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정문제가 부부갈등을 악화시키고 문화차이에 따른 갈등을 더욱 표출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어(Woelz-sterling, Manderson, Kelaher, & Gordon, 2000) 경제곤란과 문화도전의 상호작용으로 손상될 수 있는 다문화부부들의 가족과정과 그 지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곤란과 문화적 도전이 통합적으로 결혼의 질과 안정을 침해하는 과정을 가족스트레스 모형에 입각하여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경제적 곤

란과 문화적 도전이 그림 1과 같이 동시에 외생 변수로 고려될 때 각각의 영향력이 개별 스트레스 모형의 분석결과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였고, 개별 스트레스 모형검증과 일관되게 스트레스 통합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비교·검토하였다. 둘째, 문화적 도전으로 인한 결혼이민 여성 부부의 가족스트레스 과정이 부부들이 지각하는 경제적 곤란의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즉, 다문화부부가 경험하는 경제적 곤란의 정도에 따라 문화적 도전으로 인한 가족스트레스 과정이 완화되거나 악화되는 지점들을 살펴보았다.

## 방 법

### 표본

이 연구의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으로 구성된 다문화부부이다. 본 연구에 이용된 부부표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2006, 2007 테마기획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중간평가를 목적으로 2008년도 하반기에 수집된 자료의 일부이다. 표집은 전국적으로 분포된 지원사업 수행기관 36개를 통해 이루어졌고 조사에 참여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이 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국적별 분포비율과 일관되게 하는 편의 표집과 비확률 할당표집방법이 이용되었다. 이 방식으로 각 기관의 실무담당자가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20명을 선정하였고 남편들의 조사 참여를 함께 요청하여 부부표본을 확보하였다. 최종적으로 확보된 설문지는 여성 558부와 남편 455부로 총 1,013부였고 이중 부부가 모두 조사에 참여한 415쌍(n=830)의 자료가 본 연구에 이용되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 응답자들의 국적분포는 표집의도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이주여성들의 국적별 분포와 유사



하게 나타났다.<sup>7)</sup> 구체적으로, 베트남이 4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서 중국(21.7%), 필리핀(13.5%), 일본(7.7%) 순으로 이 네 나라 출신들이 응답자들의 약 87%를 차지하였다. 조사 참여 부부들의 거주지역은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가 약 65%로 농어촌과 도농복합지역을 합한 비율(33.8%)의 2배에 가까웠다. 결혼이민여성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28.7세(SD=7.51, 범위: 18세-54세)였고, 공교육 기간은 평균 10.9년(SD=3.35)으로 고등학교 중퇴수준에 해당되었다. 결혼이민여성 응답자들의 국내거주기간은 평균 46개월(SD=42.84, 범위: 3개월-336개월), 즉 3년 10개월로 결혼기간의 평균(M=45.9개월, SD=45.27, 범위: 2개월-389개월)과 유사하게 나타나 대다수가 결혼과 동시에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인 남편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41.5세(SD=5.47, 범위: 25세-65세)였고, 공교육 기간은 평균 12.1년(SD=2.79)으로 고등학교 졸업수준과 같았다. 조사참여 부부들의 가족생애 주기는 대다수(80.5%)가 무자녀나 임신중(29.9%), 만 2세 이하 영아기(24.8%) 및 만3세-6세 유아기(25.8%) 가족에 속했다. 응답자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200만원이 31.8%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도 6%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많았다. 이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2009년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김승권 외, 2010)에서 밝혀진 여성결혼이민자 부부들의 특성과 연령대,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에서 유사하다.

#### 측정<sup>8)</sup>

측정은 가족스트레스 모형에 입각하여 Conger

등(1999)이 이용한 방식과 일관되게 하였다. 따라서 기혼자 개인의 경험과 부부 단위의 현상이 측정 시 구별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곤란, 문화적 도전,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 및 결혼의 안정성은 부부 모두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부단위의 측정이 이루어졌다.<sup>9)</sup> 그 외 변인들, 즉 정서적 고통과 결혼만족은 부부 각자의 주관적 인식이 부부단위의 측정 변인들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알 수 있도록 개인단위로 측정되었다.

#### 경제적 곤란

응답자가 경험한 경제적 곤란은 결혼 후 한국에서 사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정도와 지난 1년간 지출에 필요한 돈의 충분 정도로 측정되었다. “귀하의 결혼생활을 돌이켜 볼 때, 귀하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와 “지난 1년간 귀하는 가족의 지출에 필요한 돈이 충분히 있었습니까?”를 응답자가 5점 척도(1. 전혀 어렵지 않았다/그렇지 않았다; 5. 매우 어려웠다/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곤란의 정도가 크도록 지출할 돈의 충분함은 역코딩 되었다. 부부의 경제적 곤란은 남편과 부인이 응답한 총 4문항들의 공변량이 사용되었다. 남편과 부인이 응답한 문항 4개의 신뢰도, 즉 크론바 알파계수는 .68로 나타났다, 두 문항으로 구성된 경제적 곤란 지표의 신뢰도는 남편과 부인 집단에서 각각 .64와 .76이었다.

#### 문화적 도전

문화적 도전은 문화차로 충돌이 있을 수 있

7) 조사 참여 부부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경자, 김정화(2015)에 있다.

8) 여성결혼이민자용 설문지는 6개 국어, 즉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어로 번역되었고 번역 상의 오류, 의미 일치 등은 설문지의 역번역(back translation)을 통해 확인 및 수정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9)의 연구보고서에 있다.

9) 부부단위의 측정은 부부의 공변량이 고려되므로 남편과 부인이 경제적 곤란이나 문화적 도전을 모두 높게 경험할 때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이처럼 부부가 모두 경제적 어려움이나 문화적 도전을 높게 인식할 때 경험되는 현상의 효과를 다문화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드물어 이를 보다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부부단위의 측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는 결혼생활 영역, 구체적으로 가계재정을 다루는 면과 금전관리, 가사일 분담, 중요한 일 결정, 남편 또는 부인으로서의 역할기대에서 부부 각자가 느끼는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 정도로 측정되었다. 문화적 도전의 측정에 사용된 이 문항들은 부부갈등인식 문항들 중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민자 부인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선행연구들에서도 문화차로 다문화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영역들로 보고된 것들이다(예: 김이선 외, 2006; 양순미, 2006).<sup>10)</sup> 문화적 도전의 점수는 4점 척도(1. 거의 같음, 4. 거의 틀림)의 평균이 이용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도전이 큰 것을 뜻하며 이 4 문항들에 대한 남편과 부인 응답의 신뢰도는 각각 .70과 .68로 나타났다. 문화적 도전의 부부단위 측정에는 남편과 부인이 인식하는 이 네 문항들에 대한 각자의 평균 점수 뿐 아니라 남편이 느끼는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측정한 5점 척도(1. 전혀 느끼지 않는다, 5. 매우 느낀다) 문항의 응답점수가 포함되었다.<sup>11)</sup> 문화적 도전 측정에 고려된 총 9개 문항의 신뢰도는 .70 이었다.

### 정서적 고통

부부 각자가 느끼는 정서적 고통은 우울로 측정되었다. 우울감은 지역사회 내의 우울 고위험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20 문항이 이용되었다(Radloff & Locke, 1986, p. 177).

10) 본 연구자가 비슷한 시기에 수집한 저소득층 한국인 부부표본으로 갈등인식 차이를 분석했을 때 이 문항들은 부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적 영향을 유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연구자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11) 이와 동일한 문항이 여성결혼이민자 설문지에는 포함되지 않아 남편의 응답만 분석에 고려된 것은 이차분석의 한계로 불가피하였다. 하지만 부부갈등인식 문항들에 대한 부부 각자의 점수와 이 문항의 공변량을 측정하는 것이 문화도전의 효과추정에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시도되었다.

응답자들은 지난 한 주 동안 각 문항이 묘사하는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생각해보고 4점 척도(1. 거의/전혀 그렇지 않음, 4. 거의 항상/늘 그랬음)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우울척도 점수는 20개 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 이용되었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묘사된 항목은 역코딩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척도의 신뢰도는 남편과 부인집단에서 각각 .81과 .86으로 양호하였다.

###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

부부 간에 교환되는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의 측정은 세 가지 갈등반응 척도들(조유리·김경신, 2000; Kurdek, 1994; Margolin, Fernandez, Gorin, & Ortiz, 1982)을 이용한 요인분석(현경자, 2008 참조)에서 공격적 갈등반응요인에 포함된 문항 4개로 이루어졌다(예: ‘화난 감정을 거친 행동으로 표현한다,’ ‘남편(또는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말로 위협한다,’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을 준다.’). 응답자들은 배우자와 갈등을 느낄 때 어느 정도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고, 척도점수는 응답의 평균이 이용되었다.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의 신뢰도 계수는 부인집단 .62, 남편집단 .77 이었고, 남편과 부인이 응답한 총 8개 문항의 신뢰도는 .68 이었다.

### 결혼만족

결혼만족의 측정에는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Schumm et al., 1986)이 이용되었다. 이 척도는 결혼만족의 주관성을 고려하여 가치중립적인 문항 3개(결혼생활, 배우자, 배우자와의 관계)로 만족도를 측정한다. 척도점수는 (1) 전적으로 불만족에서부터 (7) 전적으로 만족까지 7점 척도로 평정된 응답의 평균이 이용되었고 신뢰도 계수는 부인집단 .90, 남편집단 .93으로 양호하였다.

### 결혼안정성

결혼의 안정성은 Booth, Johnson 및 Edwards

(1983)가 개발한 결혼불안정 척도의 3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sup>12)</sup> 이 척도는 응답자가 지난 3년간 결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또는 이혼이나 별거에 대해 가까운 친구와 상의하거나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측정하여 결혼해체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과 행동여부를 판단한다. 2점 척도인 이 척도는 응답의 총점이 높을수록 결혼이 안정적일수록 역코딩되었다(0=예, 1=아니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부인과 남편 집단 모두에서 .68로 나타났고, 이들이 응답한 총 6개 문항의 신뢰도는 .72였다.

### 분석방법

경제곤란과 문화도전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과정을 구조화한 연구모형의 검정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이 실시되었다. 이 분석에 고려된 측정변인들 중 다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들은 요인분석의 결과를 참고하여 문항결합(item parceling)을 하였고 문항 수가 적을 시 각각의 문항이 관찰변인으로 투입되었다. 부부단위의 측정이 필요한 잠재변인은 남편과 부인의 척도 점수를 각각 측정변인으로 투입하거나(예: 문화도전, 부정적 갈등반응행동, 결혼안정성), 잠재변인의 지표별로 남편과 부인의 응답점수를 투입하는(예: 경제곤란) 방식이 이용되었다. 모수의 추정에는 원자료에 결측치가 있어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사용되었다.<sup>13)</sup>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정은 단계별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순으로 실시되었고(Anderson & Gerbing, 1988),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정 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값이 함께 검토되었다. 적합도 검정은  $\chi^2$  값이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적합도 평가에 적절한 지수로 고려되는 비교부합치(CFI), 비표준부합치(TLI) 및 신뢰구간 설정이 가능한 추정오차의 평균(RMSEA)이 검토되었다(홍세희, 2000). 적합도(CFI, TLI) 지수 값은 .95 이상, 개략화오차(RMSEA) 값은 .06 이하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된다(Hu & Bentler, 1999). 이 연구에서는 CFI와 TLI 값 .90 이상을 좋은 모형으로 간주하는 해석기준도 함께 고려하였다(홍세희, 2000).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비교에는 카이제곱( $\chi^2$ ) 값의 차이 검증과 적합도 비교가 이용되었다.

끝으로 문화도전으로 인한 가족스트레스 과정이 경제곤란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분석이 이용되었다. 다집단분석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자료에 가장 적합한 모형이 두 집단에서 동일한지를 알아보는 형태동일성을 평가하였다. 부부가 인지하는 경제적 곤란의 정도가 높은 집단(집단평균 이상)과 낮은 집단(집단평균 미만)으로 표본을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비교를 통해 형태동일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두 집단에서 동일한 측정모형이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집단별로 요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하여 연구모형에 대한 각 집단의 반응결과가 동일한지를 알아보고 “동일성제약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면” 측정동일성과 교차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p. 267). 셋째, 교차타당성이 성립되면 구조동일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집단 간 등가제약으로 경로계수들에 제약을 가하여 각 경로별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12) 이 척도는 원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응답의 편차가 거의 없어 단일변량의 정규분포 가정을 위협하는 문항(이혼에 대한 변호사와의 상의를 배우자에게 제안했는지 여부)과 응답을 통해 행위의 주체 파악이 불가능한 문항(자신 또는 배우자의 이혼제안 여부)이 제외되었다.

13) Arbuckle(1996)에 의하면 FIML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어떤 이유로 발생했건 전통적인 방법으로 결측치를 해결하는 것 보다 미지수 측정이 정확하다. Enders와 Bandalos(2001)는 결측치가 포함된 모의자료로 FIML이 정확한 부합치를 산출함을 확인한 바 있다.

결 과

가족스트레스 모형에 고려된 연구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경제곤란과 문화도전으로 인한 가족스트레스 모형에 포함된 연구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와 평균, 표준편차 및 범위는 표 1과 같다.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변인들 간의 관계 방향은 모두 예측과 일관되게 나타났다. 남편들이 지각하는 경제곤란은 자신들의 문화도전 인식 및 우울과 정적상관( $r=.17, .27, p<.01$  각각)을, 그리고 결혼만족 및 결혼안정과 부적상관( $r=-.12, -.09, p<.05, .10$  각각)을 보였다. 반면에 부인들이 지각하는 경제곤란은 분석에 고려된 모든 연구변인들, 즉 자기 자신 뿐 아니라 남편 변인들과 예측된 방향으로 모두 유의하게 연관되었다( $r=-.37\sim.32, p<.01$ ). 남편과 부인의 문화도전

인식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r=.25, p<.001$ ) 각각 자신과 상대방의 결혼만족 및 결혼안정과 부적상관( $r=-.10\sim-.40, p<.10\sim.001$ )을 보인 점에서 일치하였다. 아울러 남편의 문화도전 인식은 자신의 우울 및 부정적 갈등반응과만( $r=.28, .13, p<.01$  각각), 그리고 부인의 그런 인식은 부부의 우울과만( $r=.16, .24, p<.01$  각각) 유의하게 연관된 점에서 차이가 났다. 한편 한국인 남편이 느끼는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는 연구변인들 모두와 예측된 방향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어( $r=-.33\sim.20, p<.05\sim.001$ ) 문화도전의 측정변인으로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가족스트레스 과정에 관련된 변인들, 즉 우울, 부정적 갈등반응행동, 결혼만족 및 결혼안정은 남편과 부인 집단 내에서 뿐 아니라 집단들 간에 모두 예측대로 유의하게 연관되었고( $r=-.09\sim.42, p<.10\sim.001$ ) 이들 중 부인의 부정적 갈등반응행동과 부부가 보고한 결혼안정성

표 1. 가족스트레스 모형에 고려된 연구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와 평균, 표준편차 및 범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H경제곤란	-												
2. W경제곤란	.33***	-											
3. H문화도전	.17**	.15**	-										
4. W문화도전	.07	.23***	.25***	-									
5. H문화차인식	.17**	.13**	.31***	.10*	-								
6. H우울	.27***	.22***	.28***	.16**	.20***	-							
7. W우울	.04	.32***	.07	.24***	.16**	.16**	-						
8. H부정갈등반응	.14	.16**	.13**	.06	.16**	.42***	.21***	-					
9. W부정갈등반응	.04	.17**	.06	.08	.17**	.14**	.35***	.21***	-				
10. H결혼만족	-.12*	-.19***	-.40***	-.17**	-.33***	-.38***	-.21***	-.31***	-.11*	-			
11. W결혼만족	-.04	-.37***	-.13*	-.39***	-.18**	-.25***	-.38***	-.17**	-.13**	.25***	-		
12. H결혼안정	-.09†	-.18***	-.29***	-.10†	-.28**	-.39***	-.15**	-.33***	-.09†	.38***	.18***	-	
13. W결혼안정	-.01	-.21***	-.13*	-.17**	-.14**	-.20***	-.36***	-.18***	-.13*	.16**	.41***	.41***	-
평균	6.32	5.97	2.05	2.29	3.16	1.56	1.76	1.76	2.09	5.48	5.26	4.40	4.29
(SD)	(1.65)	(1.80)	(0.58)	(0.63)	(0.82)	(0.38)	(0.41)	(0.66)	(0.64)	(1.07)	(1.16)	(1.16)	(1.22)
범위	2-10	2-10	1-4	1-4	1-5	1-3	1-3.7	1-5	1-5	1.5-7	1-7	0-5	0-5

† $p<.10$ , \* $p<.05$ , \*\* $p<.01$ , \*\*\* $p<.001$

간의 상관만 경계선 상의 유의도를 보였다.

경제적 곤란과 문화적 도전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형의 측정모형분석 결과

조사자료가 최대우도 추정방식에서 전제하는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에 부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특이사례 여부, 다중공선성 문제 등을 살펴보았으나(Kline, 2010) 우려되는 결과는 없었다. 측정변수들은 모두 왜도 2이하, 첨도 7이하로 단일변량의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시켰다(Curran, West, & Finch, 1996). 이 연구의 세 가지 모형 - 경제곤란 모형, 문화도전 모형, 스트레스 통합 모형의 측정모형 적합도 검정 결과는 표 2에 있다. 이 표를 보면  $\chi^2$  값은 유의하지만 CFI와 TLI 지수가 스트레스 통합모형의 TLI 값 .886을 제외하고 모두 .90 이상으로 수용가능 수준을 보였고 RMSEA도 해석기준 .06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구조모형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세 가지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표 3에 있다.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경로계수는 .001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했고 표준오차가 2.5이상 크거나 오차의 분산이 음수인 경우 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김계수, 2010, p. 120).

경제적 곤란과 문화적 도전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형의 구조모형분석 결과

경제곤란 모형, 문화도전 모형 및 스트레스 통합 모형의 관계구조 적합도 분석결과는 표 4

에 유형별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chi^2$  값들은 402.38에서 643.95 사이로 모두 .001의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였지만 모형들의 CFI 값들은 .90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였다.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TLI의 경우, 스트레스 통합 연구모형 및 대안모형의 값이 .87-.88 대로 수용기준치보다 다소 낮았지만 그 외 모형들의 값은 .90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RMSEA 값들은 .065에서 .070 사이로 기준치인 .06보다 다소 높았지만 Browne과 Cudeck(1993)이 적절한 근사오차 값으로 제시한 해석기준(.05-.08)에 해당되었다. 끝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부부의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추가된 대안모형들과 연구모형들의 적합도 비교 결과, 모든 모형들에서 대안모형의 적합도가 연구모형과 유사하거나 다소 나은 수준을 보였다.  $\chi^2$  차이 검정 결과도 경제곤란 모형( $\Delta\chi^2(1)=5.89, p<.05$ ), 문화도전 모형( $\Delta\chi^2(1)=31.65, p<.001$ ), 스트레스 통합 모형( $\Delta\chi^2(2)=44.44, p<.001$ )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대안모형이 간명성에서 떨어지지만 자료에 보다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 선택된 대안모형들의 모수추정치는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경제곤란이나 문화도전이 부부의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추가된 개별 스트레스 대안모형의 분석결과들은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모두 연구모형의 경로들을 지지하였다. 예측대로 경제곤란이나 문화도전에 대한 높은 인식은 한국인 남편들과 결혼이민자 부인들 사이에서 우울로 측정된 정

표 2. 경제곤란과 문화도전 및 스트레스 통합 측정모형 적합도 검정결과

연구모형	$\chi^2$	df	CMIN/df	CFI	TLI	RMSEA [90% CI]
경제곤란 모형	406.42***	149	2.73	.934	.906	.065 [.057, .072]
문화도전 모형	355.27***	131	2.71	.939	.912	.064 [.056, .072]
스트레스 통합 모형	547.08***	202	2.71	.916	.886	.064 [.058, .071]

\*\*\* $p<.001$

표 3. 경제곤란, 문화도전 및 스트레스 통합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잠재변수 → 측정변수	경제곤란 모형			문화도전 모형			스트레스 통합 모형		
	비표준	SE	표준	비표준	SE	표준	비표준	SE	표준
경제곤란 → 남편 불충분	1.000		.360	-	-	-	1.000		.366
경제곤란 → 남편 어려움	1.070***	.217	.414	-	-	-	1.068***	.213	.420
경제곤란 → 부인 불충분	2.134***	.356	.773	-	-	-	2.103***	.345	.773
경제곤란 → 부인 어려움	2.185***	.364	.781	-	-	-	2.152***	.353	.780
문화도전 → 남편인식	-	-	-	1.000		.582	1.000		.582
문화도전 → 부인인식	-	-	-	.689***	.130	.367	.694***	.129	.370
문화도전 → 부부 문화차	-	-	-	1.176***	.181	.487	1.166***	.178	.483
남편 우울 → 우울1	1.000		.838	1.000		.836	1.000		.838
남편 우울 → 우울2	.943***	.050	.829	.944***	.050	.829	.943***	.050	.829
남편 우울 → 우울3	1.068***	.054	.869	1.072***	.055	.871	1.067***	.054	.869
부인 우울 → 우울1	1.000		.852	1.000		.845	1.000		.851
부인 우울 → 우울2	.884***	.060	.749	.894***	.061	.752	.885***	.060	.750
부인 우울 → 우울3	.865***	.059	.747	.878***	.060	.751	.866***	.059	.746
부정적 갈등반응 → 부인공격성	1.000		.360	1.000		.352	1.000		.356
부정적 갈등반응 → 남편공격성	1.740***	.322	.604	1.802***	.342	.617	1.768***	.330	.612
남편 결혼만족 → 결혼만족1	1.000		.871	1.000		.874	1.000		.874
남편 결혼만족 → 결혼만족2	1.076***	.040	.931	1.071***	.039	.929	1.071***	.039	.929
남편 결혼만족 → 결혼만족3	1.033***	.039	.919	1.029***	.039	.919	1.029***	.038	.919
부인 결혼만족 → 결혼만족1	1.000		.916	1.000		.915	1.000		.917
부인 결혼만족 → 결혼만족2	.985***	.039	.900	.987***	.039	.900	.984***	.039	.899
부인 결혼만족 → 결혼만족3	.855***	.041	.799	.858***	.041	.802	.855***	.041	.800
결혼의 안정성 → 부인인식	1.000		.506	1.000		.498	1.000		.497
결혼의 안정성 → 남편인식	1.193***	.171	.662	1.237***	.176	.674	1.242***	.176	.676

\*\*\* $p < .001$

표 4. 경제곤란, 문화도전 및 스트레스 통합 구조모형 적합도 검정결과

모형 유형	$\chi^2$	df	CMIN/df	CFI	TLI	RMSEA [90% CI]
경제곤란 연구모형	445.03***	161	2.76	.927	.904	.065 [.058, .073]
경제곤란 대안모형	439.14***	160	2.75	.928	.905	.066 [.059, .073]
문화도전 연구모형	434.03***	143	3.04	.921	.896	.070 [.063, .078]
문화도전 대안모형	402.38***	142	2.83	.930	.906	.067 [.059, .074]
스트레스 통합 연구모형	643.95***	218	2.91	.899	.872	.068 [.062, .074]
스트레스 통합 대안모형	599.51***	216	2.78	.907	.881	.065 [.059, .072]

\*\*\* $p < .001$

표 5. 경제곤란, 문화도전 및 스트레스 통합 대안모형 구조의 모수추정치

모수	개별 스트레스 대안모형						스트레스 통합 대안모형		
	경제곤란 모형			문화도전 모형			B	SE	β
	B	SE	β	B	SE	β			
경제곤란 → H우울	.14***	.03	.32	-	-	-	.06	.04	.13
경제곤란 → W우울	.19***	.03	.37	-	-	-	.15***	.04	.28
문화도전 → H우울	-	-	-	.44***	.09	.50	.48***	.12	.44
문화도전 → W우울	-	-	-	.32***	.08	.33	.24*	.11	.19
경제곤란 → 부정적 갈등반응	.05*	.02	.18	-	-	-	.01	.02	.05
문화도전 → 부정적 갈등반응	-	-	-	.30***	.08	.57	.35***	.10	.55
H우울 → 부정적 갈등반응	.38***	.07	.61	.22***	.06	.39	.23***	.06	.39
W우울 → 부정적 갈등반응	.24***	.05	.44	.17***	.04	.32	.17***	.04	.33
부정적 갈등반응 → H결혼만족	-2.32***	.44	-.50	-2.79***	.52	-.57	-2.72**	.50	-.56
부정적 갈등반응 → W결혼만족	-2.79***	.53	-.51	-2.95***	.57	-.51	-3.00***	.56	-.52
부정적 갈등반응 → 결혼안정	-1.15***	.31	-.49	-1.34***	.35	-.58	-1.31***	.34	-.56
H결혼만족 → 결혼안정	.09*	.04	.20	.06	.04	.14	.07	.04	.15
W결혼만족 → 결혼안정	.09**	.03	.24	.08*	.03	.21	.08*	.03	.20

\*B는 비표준화된 경로계수이고 β는 표준화된 계수임

\* $p < .05$ , \*\* $p < .01$ , \*\*\* $p < .001$

서적 고통과 유의하게 연관되었고( $\beta = .32 \sim .50$ ,  $p < .001$ ) 그런 우울은 부부의 부정적 갈등반응 행동에 정적으로 기여하였다( $\beta = .32 \sim .61$ ,  $p < .001$ ). 또 대안모형에 추가된 경제곤란이나 문화도전이 부부의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정적인 효과( $\beta = .18$ ,  $.57$ ,  $p < .05$ ,  $.001$  각각)도 유의했다. 즉 이 두 유형의 스트레스를 개별로 고려했을 때 각 스트레스 요인은 부부가 교환하는 공격적인 갈등반응행동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부부의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부부가 느끼는 결혼의 안정성( $\beta = -.49$ ,  $-.58$ ,  $p < .001$ ) 및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 $\beta = -.50 \sim -.57$ ,  $p < .001$ )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고, 각자의 결혼만족은 예측대로 결혼안정과 정적으로 연관되어( $\beta = .14$ ,  $p = ns$ ,  $\beta = .20 \sim .24$ ,  $p < .05$ ) 부부의 부정적인 갈등

반응행동은 이러한 간접경로로 결혼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들 중 유일하게 남편의 결혼만족이 결혼안정을 돕는 직접효과( $B = .06$ )가 문화도전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문화도전으로 인한 가족스트레스 과정에서 연구변인들 간의 예측된 관계는 결혼이민자 부인집단의 자료에 보다 잘 부합하고 한국인 남편의 결혼만족은 다문화부부의 결혼안정성과 별개로 작용함을 유추할 수 있다.

개별 스트레스 대안모형들에 대한 분석결과들이 이상과 같이 거의 모두 연구가설들을 지지하여 이들과 스트레스 통합 대안모형의 분석결과들을 비교해보았다. 표 5에 제시된 비표준화 계수(B)들의 변화를 보면, 외생변인들인 경제적 곤란과 문화적 도전을 분석에 함께 고려했을 때

경제곤란이 한국인 남편의 우울에 기여하는 효과가 .14( $p < .001$ )에서 .06으로 감소하여 유의하지 않았고 반면에 문화도전이 남편의 우울에 기여하는 효과는 .44에서 .48로 커졌고 유의도 ( $p < .001$ )에 변화가 없었다. 즉, 경제곤란과 연관된 남편의 우울수준은 문화도전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낮아지는 반면 문화도전과 연관된 남편의 우울수준은 경제곤란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오히려 더 높아져 표준화된 계수들에서 드러나듯이 경제적 곤란( $\beta = .13$ ) 보다 문화적 도전( $\beta = .44$ )이 남편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스트레스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결혼이민자인 부인들 사이에서는 경제곤란이 우울에 기여하는 효과가 .19에서 .15로 감소하였지만 유의도( $p < .001$ )에 변함이 없었고 문화도전이 우울에 기여하는 효과도 .32( $p < .001$ )에서 .24( $p < .05$ )로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유의미했다. 이를 통해 이 두 유형의 스트레스가 모두 결혼이민여성들의 정서적 고통에 기여하지만 경제곤란( $\beta = .28$ )이 문화도전( $\beta = .19$ ) 보다 우울에 기여하는 바가 큼을 알 수 있었다. 경제곤란과 문화도전이 부부의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직접효과들도 통합모형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경제곤란이 부부의 부정적 갈등반응

행동에 기여하는 효과는 .05( $p < .05$ )에서 .01로 감소하여 유의함이 사라진 데 반해 문화도전이 부부의 그런 행동에 기여하는 효과는 .30에서 .35( $p < .001$ )로 오히려 커졌다. 즉, 문화도전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경제적 곤란은 부부의 공격적인 갈등반응행동과 상관이 없었고, 반면에 문화적 도전은 경제곤란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부부의 그런 갈등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효과가 더욱 컸고 유의했다. 이상의 결과들 외에는 통합모형의 분석결과들이 문화도전 모형의 결과들과 유사함을 보였다. 즉 한국인 남편의 결혼만족이 결혼안정에 기여하는 직접효과( $\beta = .07$ )가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외에 남편과 부인의 우울이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정적효과들과 그런 갈등반응행동과 결혼만족 및 결혼안정 간의 직간접 관계는 스트레스 통합대안모형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고 연구가설들을 지지하였다.

끝으로 가족스트레스 모형에 고려된 연구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준화된 경로계수( $\beta$ )들이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문화도전과 경제곤란의 상관( $r = .42, p < .001$ )을 통제했을 때 문화적 도전은 남편과 부인의 우울에 유의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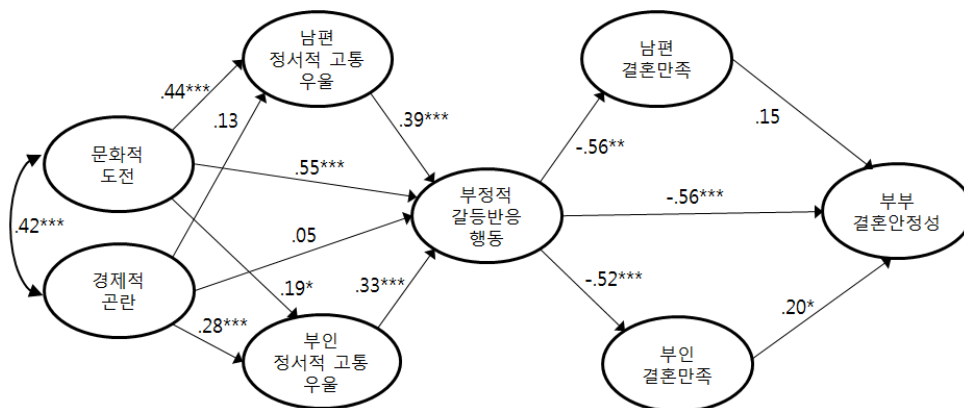


그림 2. 경제적 곤란과 문화적 도전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 부정적 갈등반응행동, 결혼만족 및 결혼안정성 간의 관계구조모형 분석결과

주. 수치는 표준화된 경로계수임. \* $p < .05$ , \*\* $p < .01$ , \*\*\* $p < .001$



적효과( $\beta=.44, .19, p<.001, .05$  각각)를 보인데 반해 경제적 곤란은 부인의 우울에만 그런 효과( $\beta=.28, p<.001$ )를 보였다. 또 문화적 도전은 남편에게 그리고 경제적 곤란은 부인에게 미친 효과가 각각 상대 배우자에게 미친 효과보다 두 배 이상 큰 특징을 보여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민자 부인에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스트레스 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었다. 각 스트레스 요인이 남편과 부인의 우울에 미친 효과는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이들이 보고한 우울이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에 미친 효과는 남편과 부인 간에 유사함을 보였다( $\beta=.39, .33, p<.001$  각각). 또 경제적 곤란이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에 미치는 정적인 직접효과는 미미했던 반면에 문화적 도전의 그런 효과는 그 보다 10 배 이상으로 컸다( $\beta=.05, .55, p=ns, p<.001$  각각). 이어서 부부의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을 직접 저해하는 정도( $\beta s=-.56, -.52, p<.01, .001$  각각)와 부부가 느끼는 결혼의 안정성을 직접 침해하는 정도( $\beta=-.56, p<.001$ )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경제적 곤란에 대한 다문화부부의 높은 인식이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결혼이민자 부인들 사이에서만 우울에 의해 매개되고, 반면에 문화적 도전에 대한 부부의 높은 인식은 남편과 부인의 우울을 키우는 간접경로 뿐 아니라 직접 부부의 공격적 갈등반응행동을 촉진함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직간접 경로들로 유발되는 부부의 공격적인 갈등반응행동은 각자의 결혼만족을 직접 감축할 뿐 아니라 부부가 느끼는 결혼의 안정성과 부정 상관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부인들의 결혼만족은 남편들과 달리 결혼의 안정성과 정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어 부부의 부정적 갈등행동이 그런 간접경로를 통해서도 결혼의 안정을 감축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들을 근거로 경제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형이 문화도전과 경제곤란을 경험하는 결혼이민자 부인집단의 자료에 보다 부합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문화도전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과정의 경제곤란 수준별 다집단분석 결과

문화도전으로 인한 가족스트레스 과정이 다문화부부가 경험하는 경제적 곤란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분석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표 6에 있다. 우선 경제적 곤란 고집단과 저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여 가족스트레스 과정, 즉 구조모형에 대한 각 집단의 형태가 동일한지를 살펴보았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두 유형의 하위집단 모두 전체집단의 분석결과와 일관되게 대안모형의 적합도가 다소 나은 수준을 보였고,  $\chi^2$  차이 검정 결과도 경제곤란 고집단( $\Delta\chi^2(1)=28.27, p<.001$ )과 저집단( $\Delta\chi^2(1)=6.88, p<.01$ )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대안모형이 각 집단의 자료에 보다 부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구조모형에 대한 집단 간의 형태동일성이 지지되었다. 다음 절차로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TLI 값은 .878로 수용기준에 다소 못 미쳤지만 CFI(.905)와 RMSEA(.053)가 그 기준을 만족시켜 측정변수들이 각 집단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교차타당성이 성립되었다(김주환 외, 2009, p. 267). 끝으로 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를 위해 구조동일성을 검토한 결과, 대안모형의 모든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집단 간 등가제약 모형의 적합도가 기저모형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elta\chi^2(10)=28.98, p<.01$ ). CFI와 TLI 값도 해석 기준치인 .90보다 작았고 기저모형보다 다소 나쁘게 나타나( $\Delta CFI=-.006, \Delta TLI=-.003, \Delta RMSEA=.001$ ) 이 두 집단 간에 경로구조가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문화도전으로 인한 가족스트레스 과정은 다문화부부가 인식하는 경제적 곤란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는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문화도전 스트레스 대안모형의 집단별 모수 추정치와 동

표 6. 문화도전으로 인한 가족스트레스 과정에 대한 다집단분석 결과

	$\chi^2$	df	CMIN/df	CFI	TLI	RMSEA [90% CI]
<b>경제곤란 높은 집단</b>						
문화도전 연구모형	340.34***	143	2.38	.897	.863	.083 [.072, .095]
문화도전 대안모형	312.07***	142	2.20	.911	.882	.078 [.066, .089]
<b>경제곤란 낮은 집단</b>						
문화도전 연구모형	248.56***	143	1.74	.911	.882	.070 [.055, .084]
문화도전 대안모형	241.68***	142	1.70	.916	.888	.068 [.053, .082]
측정동일성제약 대안모형	590.79***	296	2.00	.905	.878	.053 [.049, .061]
집단간 등가제약 대안모형	619.77***	306	2.03	.899	.875	.054 [.048, .060]

\*\*\* $p < .001$

표 7. 문화도전 대안모형의 경제곤란 수준별 모수 추정치(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들 간의 경제곤란 고저 집단 차이 비교

모수	경제곤란 낮음			경제곤란 높음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별 차이 변화량		
	B	SE	$\beta$	B	SE	$\beta$	자유도	$\chi^2$	TLI
문화도전 → H우울	.38*	.15	.45	.36***	.10	.43	1	.016	-.001
문화도전 → W우울	.30 <sup>+</sup>	.16	.26	.33**	.10	.38	1	.011	-.001
<b>문화도전 → 부정적 갈등반응</b>	<b>.29<sup>+</sup></b>	<b>.15</b>	<b>.79</b>	<b>.28**</b>	<b>.10</b>	<b>.89</b>	<b>1</b>	<b>9.356**</b>	<b>.003</b>
<b>H우울 → 부정적 갈등반응</b>	<b>.10</b>	<b>.09</b>	<b>.19</b>	<b>.22**</b>	<b>.07</b>	<b>.44</b>	<b>1</b>	<b>8.865**</b>	<b>.003</b>
W우울 → 부정적 갈등반응	.18*	.07	.46	.04	.05	.07	1	.498	-.001
부정적 갈등반응 → H결혼만족	-3.55**	1.16	-.59	-3.86***	1.01	-.67	1	.401	-.001
부정적 갈등반응 → W결혼만족	-3.09**	1.13	-.42	-3.66***	1.02	-.53	1	.511	-.001
<b>부정적 갈등반응 → 결혼안정</b>	<b>-1.13<sup>+</sup></b>	<b>.64</b>	<b>-.44</b>	<b>-2.05***</b>	<b>.71</b>	<b>-.82</b>	<b>1</b>	<b>2.999<sup>+</sup></b>	<b>.000</b>
H결혼만족 → 결혼안정	.05	.07	.12	.02	.06	.05	1	.274	-.001
W결혼만족 → 결혼안정	.05	.05	.14	.02	.04	.06	1	.280	-.001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10	28.980	-.004

주. B는 비표준화된 경로계수이고  $\beta$ 는 표준화된 계수임

<sup>+</sup>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별로 계수차이에 대한 적합도 변화량이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나타나듯이, 경제곤란 고·저 집단 간에 경로별로 유의한 차이는 세 경로에서 발견되었다. 문화도전

이 직접 부부의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에 기여하는 경로( $\Delta\chi^2(1)=9.36$ ,  $p=.002$ ,  $\Delta TLI=.003$ )와 남편의 우울이 그러한 갈등반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Delta\chi^2(1)=8.87$ ,  $p=.003$ ,  $\Delta TLI=.003$ ) 그리고

부부의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이 결혼의 안정성을 직접 감축하는 경로( $\Delta\chi^2(1)=3.00, p=.083, \Delta TLI=.00$ )에서 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경계선 상에서 유의했다.

이 두 집단의 경로계수 차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 3에 경로별로 좌측과 우측에 경제곤란 고집단과 저집단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들이 각각 제시되어 있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로들은 진한 선으로 그리고 차이가 없는 경로들은 점선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그림에 나타나듯이, 경제곤란 고·저집단 모두에서 다문화부부들이 문화적 도전으로 부부간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을 보이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경계선 상에서 유의했지만( $\beta=.89, .79, p<.001, .10$  각각) 경제곤란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에서 그런 경향성이 보다 현저하였다. 또 문화도전으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남편의 정서적 고통, 즉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은 경제곤란 고·저집단 모두에서 유의했는데( $\beta=.43\sim.45, p<.01$ ) 그런 남편의 우울이 부부간의 부정적인 공격적 갈등반응행동으로 이어지는 결과( $\beta=.44, p<.01$ )는 경제곤란 인식이 높은 집단에서만 발견되었고 경제곤란 인식이 낮은 집단에서는 남편의 우울

이 부부간의 공격적인 갈등반응행동에 유의하게 기여하지 않았다( $\beta=.19, p=ns$ ).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이 결혼의 안정성을 감축하는 정도는 두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경계선 상의 유의도를 보였는데 경제곤란 인식이 높은 집단에서 그러한 경향성이 보다 현저하였고,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보다 크게 나타났다( $\beta=-.82, -.44, p<.001, .10$  각각). 이상의 결과들은 경제적 곤란을 경험한 정도가 높은 다문화부부들 사이에서 문화도전에 따른 스트레스와 남편의 우울로 부부간에 공격적인 갈등반응행동이 야기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그런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은 이어서 결혼해체에 대한 부부의 생각을 키워 결혼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논 의

이 연구는 경제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형(Conger et al., 1994, 1999)을 응용하여 경제곤란과 문화도전이 다문화부부들 사이에서 우울과 같은 정서적 고통과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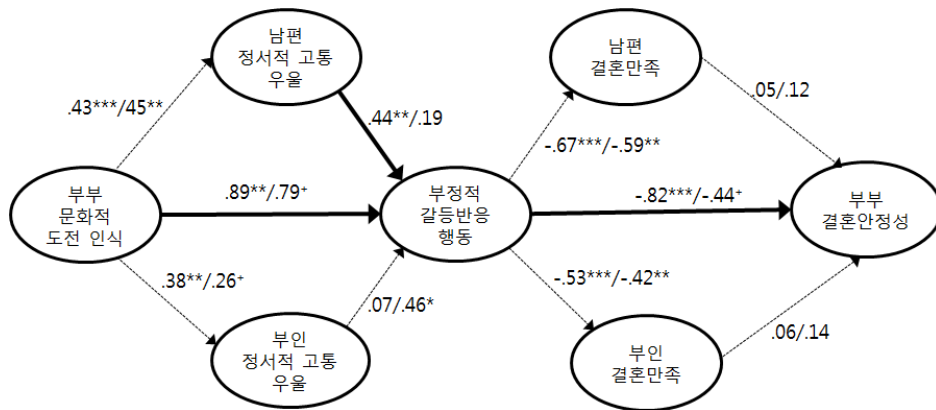


그림 3. 문화도전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대안모형의 경제곤란 수준별 모수 추정치(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주. 수치는 경제곤란 고집단(좌측)과 저집단(우측)의 표준화된 경로계수이고, 진한실선은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경로임.

+ $p<.10$ , \* $p<.05$ , \*\* $p<.01$ , \*\*\* $p<.001$

해 결혼의 질과 안정을 침해하는 경로를 밝히고, 이 두 스트레스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문화도전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과정이 부부가 인식하는 경제곤란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하였다. 전국단위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여성결혼이민자 부부 표본 415쌍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도전이나 경제곤란으로 부부 간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이 부부 각자의 정서적 고통에 의해 중재되고, 이어서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이 각자의 결혼만족을 감축하는 간접경로와 직접경로로 결혼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연구모형과 각 스트레스 요인이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가 포함된 대안모형을 경쟁모형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보다 대안모형의 적합도가 개별 및 스트레스 통합 모형 모두에서 좀 더 양호하게 나타났고,  $\chi^2$  차이검정 결과들도 유의미한 수준에서 대안모형들을 지지하여 대안모형들이 자료에 보다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형이 다문화부부들의 경제적 곤란 뿐 아니라 문화적 도전과 같은 스트레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개별 스트레스 모형들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가족스트레스 모형과 일관된 방식으로 대부분의 결과들이 연구가설을 지지하였다. 우선 부부가 지각하는 경제곤란이나 문화도전은 각각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민자 부인의 우울과 정적으로 연관되었고 그런 우울은 부부의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Conger 등(1999)이 발전시킨 가족스트레스 모형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또 각 스트레스 요인이 부부의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에 직접 유의하게 기여하는 점이 대안모형들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스트레스 요인과 갈등반응행동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국내의 저소득층 및 중산층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예: 현경자, 2008; Kwon et al., 2003)에서 발견된 바 있다. 예측대로 부부의 부

정적인 갈등반응행동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민자 부인의 결혼만족을 낮추는 간접경로와 직접 경로로 결혼의 안정과 부적으로 연관되었다. 이 결과들 중 한국인 남편의 결혼만족이 부부의 결혼안정을 돕는 경로가 문화도전 스트레스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예외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결과들은 경제곤란 뿐 아니라 문화도전으로 다문화부부의 결혼생활이 손상되는 경로 구조가 경제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문화도전과 경제곤란 스트레스를 함께 고려한 스트레스 통합모형을 분석한 결과, 경제곤란과 연관된 남편의 우울수준은 문화도전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유의함이 사라졌고 반면에 문화도전과 연관된 남편의 우울수준은 경제곤란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오히려 더 높아져 문화적 도전이 남편들에게 보다 더 스트레스가 되어 정서적 고통을 초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 부인들의 경우, 이 두 유형의 스트레스가 모두 우울에 유의하게 기여했지만 경제적 곤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 이 여성들에게 경제적 곤란이 보다 더 스트레스로 작용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은 이 연구에 이용된 표본으로 문화도전이나 경제곤란이 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APIM, 즉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으로 조사한 연구(현경자, 김정화, 2015)에서 한국인 남편은 문화도전으로 그리고 결혼이민자 부인은 경제곤란으로 어려움이 클수록 부부 모두의 이혼의사가 강하였던 결과로 이어지는 부부심리의 일단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의 결과들에서 경제적 변인과 문화적 변인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민자 부인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한 패턴을 보였는데 선행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어 고무적이다. 예를 들어,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낮은 월소득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임혁, 2010) 뿐 아니라 부부 갈등(김오남, 2006; 오광실, 정혜정, 2012)에 모두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인 남편들에 대한 연구들은 종속변인으로 결혼만족이나 결혼적응을 다룬 것들이 발견되는데, 이 연구들에서 소득이나 경제적 수준은 영향력이 미미한 반면 문화적응 태도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설명력이 큰 주요 예측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은희, 이정란, 2012; 장은정, 박정윤, 2009; 최현미, 2014). 이 연구의 표본에 포함된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태어나고 자란 경우가 많아 경제적 곤란에 상대적으로 익숙할 뿐 아니라 그것의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연구의 결과들도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 부인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이들이 많지만 이들은 국제결혼을 통해서 더 나은 조건의 삶과 경제력을 획득하고 고국의 원가족들을 도우려는 동기가 높았던 여성들이다(김이선 외, 2010). 이들에게 경제곤란의 장기화와 심화는 꿈과 목표의 좌절을 뜻하는 것이 되므로 정신건강과 부부관계의 손상 뿐 아니라 결혼생활 자체를 회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 통합모형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경제곤란이 부부간의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사라진데 비해 문화도전이 그런 행동에 미치는 정적인 직접효과는 오히려 커져 경제적 곤란의 수준이 같다면 문화적 차이로 부부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클수록 부부 간에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이 교환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문화도전의 효과를 감안하면 경제곤란의 부적 영향력이 미미해짐을 시사하여 이 두 스트레스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확인시켜준다. 이 연구에서 경제곤란과 문화도전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부의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민자 부인의 결혼만족을 예측대로 유의하게 감축했지만 한국인 남편의 결혼만족은 다문화부부가 지각하는 결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외국인 부인과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갈등반응행동을 교환하여 한국인 남편의

결혼만족이 낮아지더라도 그와 같은 인지·정서적 요소가 결혼유지에 대한 남편의 동기나 의사에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서울지역의 저소득층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현경자, 2008)에서 남편의 결혼만족이 부부가 보고한 결혼불안정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결혼초기 한국남성들 사이에서 결혼만족이 결혼안정성에 기여하는 유일한 요인으로 발견된 것(강혜숙, 김영희, 2008)과 대조되며, Conger 등의 연구(1990)에서 중산층 백인 남편의 결혼만족이 결혼불안정과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여준 것과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혼대안의 질과 여부가 결혼만족 보다 결혼의 안정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Udry(1981)의 결혼대안 이론과 다문화부부의 결혼에 각자의 이해(利害)가 얽힌 도구적 요소가 크다는 점(김혜순, 2014)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래에 국제결혼을 선택한 한국인 남편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아 경제나 건강 면에서 예비력이 한정된 저소득층이 많고 따라서 자기자원이 적고 결혼의 대안이 적을 수 있다(현경자, 김정화, 2015). 이 남성들에게 이혼은 김혜순(2014, p. 332-333)이 지적했듯이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성과 노동 뿐 아니라 초청자로서 부담했던 사회·경제·정서적 비용의 상실과 이민배경을 가진 자녀의 상실 또는 양육부담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단일문화인들의 결혼관련 연구들(김영희, 1999; 현경자, 2008; Bradbury, Fincham, & Beach, 2000)에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는 결혼만족과 결혼유지의사를 나타내는 결혼안정성이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들 사이에서 별개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이 이해된다.

끝으로, 문화도전과 경제곤란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화도전으로 인한 가족스트레스 과정이 부부가 경험해 온 경제곤란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봐왔다. 다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곤란의 고·저집단 모두 전체집단의 분석결과와 일

관되게 문화도전이 부부의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추가된 대안모형의 적합도가 보다 양호하게 나타나 형태동일성이 확인되었다. 이어서 측정동일성제약을 가한 대안모형들에서도 적합도가 수용가능한 수준을 보여 변수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교차타당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집단 간 등가제약 모형은 기저모형과  $\chi^2$  차이 검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그 외의 적합도 지수도 다소 나빠져 경제곤란의 고·저집단 간에 경로구조가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경로별로 두 집단의 계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경제곤란 인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문화도전 인식과 한국인 남편의 우울이 부부간에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을 일으키는 직접경로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그런 갈등반응행동이 결혼의 안정성을 감축하는 경로도 경계선 상의 유의도 수준에서 차이가 났다. 즉, 문화도전으로 다문화부부가 교환하는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갈등반응행동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곤란을 오래 겪었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부부 집단에서 보다 현저하였고 문화차에 따른 스트레스로 한국인 남편이 느끼는 우울이 부부간에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갈등반응행동을 초래할 가능성도 경제적 곤란 인식이 높은 부부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높았다. 그러한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이 결혼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제적 곤란 인식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에서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다집단분석 결과들은 다문화부부들의 결혼생활에 잠재된 이중고, 즉 경제적 곤란과 문화적 도전이 실제할 경우 이들의 상호작용이 역기능적일 수 있는 경로들을 비취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의 연구들에서는 문화차로 인한 스트레스와 경제곤란의 상호작용이 소홀히 다루어졌고 다문화부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태도 등 문화적 이슈만 부각된 경향이 컸다. 이 연구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다문

화과정에서 문화적 도전에 따른 부부의 스트레스와 한국인 남편의 우울로 부부간에 공격적인 갈등반응행동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혼의 안정성을 침해하여 결혼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다 높아짐을 보여준다. 이 결과들은 문화차로 인한 다문화부부의 갈등은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동시에 크지 않다면 부부 간에 보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고 따라서 결혼의 안정성이 보호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경제력 강화가 결혼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또 이 결과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방향이 결혼이민여성의 언어문화교육과 역량강화 뿐 아니라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경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남편의 역량강화에도 주력해야 함을 생각해보게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역량이 강화되고 남편과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면서 부부갈등이 야기되었다는 연구결과(신영화, 2010) 등을 감안하면 가족친화적인, 즉 남편을 포함하는 부부단위의 경제력 강화가 필수적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과 사회적 지원은 문화차로 가족갈등이 악화되어 다문화가족이 해체되는 경로를 차단하거나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실히 보인다.

####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급증한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결혼생활에 잠재된 이중고, 즉 경제곤란과 문화도전으로 인한 가족스트레스 과정을 밝히고 이 두 스트레스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새 지식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제한점이 있어 연구결과들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우선 본 연구는 기존의 부부표본을 이용한 이차분석을 실시하여 잠재변인들의 측정에 한계가 있었고, 횡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를 한 시점에서 추정할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또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시행하던 기관들을 통해 표본이 추출되어 특정지역에 한정된 선행연구들에 비해 진실보한 측면이 있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다문화부부들이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일반화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가족스트레스 모형을 응용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과 대부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자신을 가져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이차자료로 잠재변인의 측정이 제한된 면을 살펴보면, 첫째, Conger 등(1999)이 발전시킨 가족스트레스 모형에서는 정서적 고통을 우울과 분노 및 불안으로 측정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정서적 고통이 우울로 측정되었다. 다문화부부들이 보고한 우울의 수준은 예측대로 부부의 공격적인 갈등반응행동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지만, 우울의 내향성을 고려할 때 갈등반응행동을 외향적인 공격성으로 조작화하고 측정하는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 우울이 다른 유형의 갈등반응행동과는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비합리적인 갈등반응행동으로 대체했을 때는 스트레스 모형의 적합도가 오히려 더 나빠졌고 회피와 철회 같은 갈등반응행동으로 대체했을 때는 적합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부부의 우울과 공격적인 갈등반응행동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부부들의 과반 수 이상은 결혼기간이 3년 이하로 결혼초기에 해당된다. 만약 언어장벽으로 심리적 좌절을 상대에게 적절히 표출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된다면, 신체를 이용한 표현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 상대에게 해를 가하는 공격적 행동이나 회피, 철회 등의 반응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더 용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가설은 다문화부부의 결혼기간이나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 우울과 연관된 갈등반응행동의 유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는 후속연구를 통해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문화적 도전은 부부갈등인식 영역들 중 다문화부부들의 인식 차이가 유의미하고 한국인 남편들이 배우자와의 문화차를 느끼는 정도와 연동되는 것들로 측정되었다. 스트레스 통합 모형에 대한 분석 시 경제곤란이 부부의 부정적 갈등반응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미미해졌는데 그에 비해 문화도전의 그러한 효과는 오히려 커져 문화도전의 측정방식이 그런 결과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연구변인들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를 떠올려 보면 남편의 문화차 인식 문항은 모형에 고려된 모든 변인들과 예측과 일관된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어 문화도전의 측정에 이 문항을 포함시킨 것이 적절했음을 알 수 있다. 추가로 문화도전의 관찰변인에 포함된 남편의 문화차 인식 문항을 삭제하고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여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는데, 문화차 인식문항이 포함된 모형들의 적합도가 더 양호하였고 변인들 간의 유의한 관계들도 거의 대부분 일관되게 나타났다. 즉, 연구결과들에서 나타난 남편과 부인 간의 차이나 경제곤란과 문화도전의 영향력 차이가 남편의 문화차 인식 문항의 추가로 인한 결과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후속연구를 통해 이 점을 보다 분명히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부부들이 느끼는 문화도전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부부간에 문화적 타협과 조율이 필요한 영역들과 경험들을 토대로 한 지표나 측정도구의 개발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이 연구는 개인단위의 변인과 부부단위의 변인을 분석에 함께 고려하여 측정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부부변인에 대한 남편과 부인 문항들 모두의 내적일치도가 남편집단과 부인집단의 내적일치도와 전반적으로 유사하거나 다소 높았고, 부부변인들에 포함된 남편집단과 부인집단 점수들의 상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들 상관의 강도가 크지 않아 그런 점이 보완된 표본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이 지지되

는지를 앞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Conger 등(1999)의 연구에서 경제압박의 측정은 매우 면밀히 폭 넓게 이루어졌고 남편과 부인 점수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부부점수를 합쳐서 만든 세 가지 경제지표가 이용되었다. 이 경우 점수 합산을 위해 남편과 부인점수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지표가 부인점수와 남편점수로 구분되어 점수의 표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연구변인들로 추가적인 모형분석들을 실시한 결과, 중요한 결과들에서 차이가 없어 측정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곤란의 측정이 두 방향으로 간략히 이루어져 후속연구에서는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상과 같은 제한점들이 있지만 이 연구는 가족스트레스 모형연구의 영역과 대상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고 무엇보다 경제곤란과 문화도전의 상호작용으로 역기능적일 수 있는 가족과정의 지점들을 조명하는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 지식들을 토대로 경제곤란이나 문화도전과 같은 스트레스로부터 다문화부부들을 보호하는 내외적 요인이나 심리사회적 자원을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이들이 그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데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유진 (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8-81.
- 강혜숙, 김영희 (2008). 결혼초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1), 135-156.
- 고은주 (200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가정폭력,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외상후 스트레스와 심리건강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인숙, 송효숙, 김경애 (1999). 경제적 위기가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 - IMF관리체제 전후의 비교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21-137.
- 권구영, 박근우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전라남도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14, 187-219.
-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 권희경 (2009). 가족 외부 지원의 경제적 압박 완화 효과: “경제적 압박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 모델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2), 111-131.
-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 김계하, 선정주, 오숙희 (2013). 여성결혼이민자 남편의 스트레스, 자존감 및 무력감.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1), 29-39.
- 김민정 (2008). ‘다문화’시대 문화이해와 교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위원회 편. *다문화가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역량강화*(pp. 17-27)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김석란 (2008). 한·일 국제결혼을 통해 본 문화적 갈등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 35, 287-299.
- 김승권, 김유경, 조애지, 김혜련, 이해경,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희 (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7(6), 77-95
- 김오남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 (2008).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과 소통 경험을 통해 본 정신건강의 역동성.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8-51.
- 김이선, 마경희, 선보영, 최호림, 이소영 (2010).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순 (2012).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현숙 (20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133-159.
- 김혜순 (2014). 결혼이민여성의 이혼과 '다문화정책'- 관료적 확장에 따른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의 물이민적·물성적 결합. 한국사회학, 48(1), 299-344.
- 박서영, 하수정, 송지영, 안현선, 조희원, 박성연 (2009). 일본인 모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양부모 한인가정 어머니의 자녀관, 부모역할 신념 및 삶의 만족도와 양육태도 간의 관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43-54.
- 박종삼 (1983). 한·미 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의사전달 갈등의 임상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4, 1-15.
- 박재규 (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민자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농촌사회, 17(2), 427-442.
- 박재규 (2011).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가족해체 원인 및 특성분석: 경기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3), 104-139.
- 박진옥, 이광동 (2014). 다문화가족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정내 역할유형 및 젠더의식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6(1), 205-236.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적응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 서해정, 김형모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359-389.
- 설동훈, 이계승 (2011).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지역사회학, 13(1), 117-147.
- 손은록 (2004).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과 갈등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영화 (2010).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집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2), 161-192.
- 안병철 (1998). 실업과 가족- 실업의 영향, 매개요인,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농촌사회, 16(2), 151-182.
-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7-168.
- 오광실, 정혜정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3), 153-171.
-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 김성국, 정근식, 유명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pp. 321-349). 서울: 한울.
- 이규삼 (1999).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근무, 김진숙 (2009). 국제 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 연구: 7인의 새로운 디아스포라 (neo-diaspora) 이야기. 한국사회복지학, 61(2), 135-162.
- 이무영 (2010). 다문화가족 한국 남성 배우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미숙, 고선주, 권희경 (2000). 경제위기 상황에서서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생활의 질. 대한가정학회지, 38(6), 117-133.

- 이성희, 김현수, 조성경 (2012). 결혼이주여성의 개인배경특성,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167-189.
- 이은희, 이정란 (2012).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디지털정책연구*, 10(11), 441-448.
- 임수진, 오수성, 한규석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 - 광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515-528.
- 임혁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189-221.
- 장은정, 박정윤 (2009). 결혼이민자가정 한국인 남편의 가족관련 가치관 및 문화적응태도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1(2), 1-27.
- 장기선, 김영혜, 박경은, 이은아, 박지혜, 이승애, 이지혜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 장기선, 한지은 (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32(2), 87-114.
- 정선아 (2009). 다문화가정 한국남성 배우자의 문화적응태도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자, 방희정 (1998). 사회경제적 변화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1), 1-16.
- 최지영 (2009).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남편으로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 225-254.
- 최지영 (2013).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부부갈등 경험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현미 (2014).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능력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45(3), 259-284.
- 통계청 (2015). 국제결혼 및 여성결혼이민자 통계(<http://www.kosis.kr>).
- 한주연 (2002). 한일 국제결혼 가정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경자 (2008). 저소득층 부부들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결혼결과: 탄력적 대응을 돕는 기혼자의 자기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3), 49-79.
- 현경자 (2012).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의 질과 안정 - 결혼경로 유형과 지원서비스 이용기간 효과를 중심으로. *서석사회과학논총*, 5(2), 9-46.
- 현경자, 김연수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 사회적 지지의 직접 및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653-677.
- 현경자, 박선영 (2012). 경제적 압박과 저소득층 부부의 친밀성: 남편과 부인의 관점의 다각화와 갈등반응행동의 기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385-411.
- 현경자, 김정화 (2015).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이 다문화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로 본 상호의존성과 관계패턴. *한국사회복지학*, 67(2), 203-236.
- 홍성효, 하헌주, 김종수 (201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이혼결정요인. *한국인구학*, 35(3), 169-189.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nderson, J., & Gerbing, D.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ng, M. A. (1995). The Filipino settlement experience

- in Australia. *Asian Migrant*, 8(2), 42-46.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Marcoulides & R. Schu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pp. 243-27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 59-73.
- Booth, A., Johnson, D., & Edwards, J. (1983).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2), 387-394.
- Bradbury, T. N., Beach, S., Fincham, F. D., & Nelson, G. M. (1996). Attributions and behavior in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marria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3), 569-576.
- Bradbury, T., Fincham, F., & Beach, S.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964-980.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onger, R. D., Elder Jr., G., Lorenz, F. O., Conger K. J., Simons, R. L., Whitbeck, L. B., Huck, S., & Melby, J. N. (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643-656.
- Conger, R. D., Ge, X. J., & Lorenz, F. O. (1994). Economic stress and marital relations. In R. D. Conger & G. H. Elder Jr. (Eds.), *Families in troubled times: Adapting to change in rural America* (pp. 187-203). New York: Aldine de Gruyter.
- Conger, R. D., Rueter, M. A., & Elder Jr., G. (1999). Couple resilience to economic pres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54-71.
- Conger, R. D., & Conger, K. J. (2002). Resilience in midwestern families: Selected findings from the first decade of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361-373.
- Conger, R. D., Wallace, L. E., Sun, Y., Simons, R. L., McLoyd, V. C., & Brody, G. H. (2002). Economic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2), 179-193.
- Curran, P., West, S., &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Enders, C., & Bandalos, D. (2001). The relative performance of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or missing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8, 430-457.
- Gottman, J. M. (1993). A theory of marital dissolution and stabil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 57-75.
- Hu, L.,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Kinnunen, U., & Feldt, R. (2004). Economic stress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couples: Analyses at the dyadic level.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 519-532.
- Kline, R.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Y: Guilford Press.
- Kurdek, L. A. (1994). Conflict resolution styles in gay, lesbian, heterosexual nonparent and heterosexual parent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705-722.
- Kwon, H. K., Rueter, M. A., Lee, M. S., Koh, S., & Ok, S. (2003). Marital relationships following the Korea economic crisis: Applying the family

- stress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316-325.
- Margolin, G. F., Fernandez, V., Gorin, L., & Ortiz, S. (1982). *The conflict inventory: A measurement of how couples handle marital tension*. Paper presented at the 16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Los Angeles, CA.
- Radloff, L., & Locke, B. (1986). The community mental health survey and the CES-D scale. In *Community Surveys of Psychiatric Disorder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Sallinen, M., & Kinnunen, U. (2001). Economic stress and family well-being: Mediator effects. *Psykologia*, 36(4), 245-256.
- Schumm, W., Paff-Bergen, L., Hatch, R., Obiorah, F., Copeland, J., Meens, L., & Bugaighis, M. (198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81-387.
- Udry, J. R. (1981). Marital alternatives and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November), 889-898.
- Vinokur, A. D., Price, R. H., & Caplan, R. D. (1996). Hard times and hurtful partners: How financial strain affects depress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unemployed persons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1), 166-179.
- Voydanoff, P. (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99-1115.
-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Guilford Press.
- White, L., & Rogers, S. J. (2000). Economic circumstances and family outcomes: A review of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035-1051.
- Woelz-stirling, N., Manderson, L., Kelaher, M., & Gordon, S. (2000). Marital conflict and finances among Filipinas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6), 791-805.

1 차원고접수 : 2016. 09. 09.

수정원고접수 : 2016. 11. 24.

최종게재결정 : 2016. 11. 25.

## **Effects of Economic Hardship and Cultural Challenge on Family Processes among the Multicultural Couples: Applicat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Caused by Economic Pressure**

**Kyoung Ja Hyun**

Sungkonghoe University

This questionnaire study of 415 multicultural couples examined family processes linking economic hardship and cultural challenge individually and together to emotional distress and negative conflict response behavior, which, in turn, affect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It also investigated whether the family stress process caused by cultural challenge differs across the level of economic hardship so as to understand an interaction between these two stress factors.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supported alternative stress models that included a direct path from a stress factor(s) to a negative conflict response behavior. As expected, economic hardship or cultural challeng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among both Korean husbands and female marriage immigrant wives, and such depression of both sides contributed to negative conflict response behavior reported by the couples. In addition each stress factor had a positive direct effect on negative conflict response behavior, which, in tur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marital satisfaction of both husbands and wives, and with marital stability perceived by the couples. However, in both cultural challenge and stress integration models,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did not contribute to marital stability. Furthermore, in the stress integration model, the significant effect of economic hardship on husbands' depression disappeared whereas such effect of cultural challenge increased, suggesting that cultural challenge was a major source of stress for Korean husbands. In contrast, both stress factor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wives' depression. Also the direct significant effect of economic hardship on negative conflict response behavior disappeared while such effect of cultural challenge rather increased. Finally, results of multigroup analyses revealed that direct effects of cultural challenge and husbands' depression on negative conflict response behavior were significantly greater among a high level of economic hardship group, and a direct effect of such conflict behavior on marital stability was also greater among that group, suggesting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se three paths between the high level group and the low level group of economic hardship.

*Keywords* : Multicultural couple, economic hardship, cultural challenge, depression, marital conflict, multigroup analysis